

# 회원사 동정

데 이 콤

LG정보통신

서울시스템

솔빛조선미디어

삼 테 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메디슨

## 데이콤

### SI담당상무에 황규선씨 발탁

업계 첫 임원공채에 25명 몰려

데이콤은 최근 실시한 임원공채에서 SI(시스템통합)사업담당 임원으로 쌍용컴퓨터 상무를 지낸 황규선씨(50)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이 그동안 행정전산망등 공공부분에 치우쳤던 SI 사업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정보통신업계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임원공채에 현직 대기업임원과 시스템컨설턴트등 25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데이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황규선씨를 상무이사로 선임하였다.

### 노벨과 멀티기술및 인력교류 협력 체결

데이콤이 미국의 최대 통신 소프트웨어업체인 노벨社와 멀티미디어기술 및 인력교류를 하는 내용의 협력계약을 체결한다. 데이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천리안"의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동과 SI분야의 멀티미디어기술 탑재를 위해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선진기술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이분야에 최대 기술업체인 미국 노벨사와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지난달 데이콤-노벨 협력계약에 서명 협력각서를

노벨측에 보냈으며 노벨社도 데이콤을 앞세워 국내 초고속망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아래 이달말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체결하는 협력내용은 공중정보통신망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기술제공 및 인력교류로 데이콤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통신서비스에 멀티미디어기술을 채용하기로 했다.

## LG정보통신

### 380MHz대역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자체 개발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3백80대역의 주파수공용통신(TRS)시스템 자체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8백대역의 TRS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요과잉으로 인한 주파수대역 부족으로 3백80대역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 대역의 사용허가신청 기업 및 기관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LG정보통신이 자체개발한 3백80대역 TRS시스템은 정보통신부로부터 5개 채널을 할당받아 시험운영중에 있다. 한편 LG는 93년에도 8백 대역의 TRS시스템을 당시 체신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자체개발했다.

### ISDN용 자체 고속기업통신망 구축·가동

LG정보통신은 음성 데이터 영상등을 동시에

서비스할수 있는 ISDN(종합정보통신망)용 자체 고속기업통신망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은 지능망구축을 위한 1단계사업으로 그동안 각각 전용선으로 연결돼 있던 전국 4개사업장(트윈타워 구로공장 안양연구소 구미공장)의 통신망을 T1급(1.544M bps)의 네트워크로 연결, 이같은 고속기업통신망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단순한 음성 데이터송수신정보교류단계에서 PC영상회의 화상전화 G4팩시밀리서비스등 다양한 첨단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통신망구축을 위해 LG정보통신은 ISDN대용량사설교환기로는 처음 형식승인을 획득한 자사의 스타렉스 LDi를 전국 각 사업장에 1대씩 설치,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는 물론 각종 ISDN단말기들을 별도 장비없이 연결할수 있도록 했다.

### 네트워크기능 탑재된 소형 브라우저 개발

LG정보통신은 네트워크기능이 탑재된 소형 브라우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브라우저는 네트워크구성의 핵심장비로 구역내통신망(LAN)간을 연결해 주는장비이다.

이번에 LG정보통신이 상품화한 브라우저는 ETHERNET 포트 2개와 WAN(광역망) 포트 2개를 가지고 있는 박스구조의 소형제품으로,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 구성에 경제적인 제품이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능과 프로토콜을 국제표준규격에 맞게 설계해 타시스템과의 호환성도 뛰어나다.

## 서울시스템

### DTP 및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강화

서울시스템(대표 이웅근)은 최근 국내 신문사들의 자료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개발 및 전자출판(DTP)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스템은 올해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한 화상데이터베이스와 기사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개발 자체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심이 많은 신문사들을 집중공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이달말경 전문가용 전자출판소프트웨어인 "페이지프로 2.0"을 시판 최근 총무로 올지로 등지의 국내 출판업체들의 전자출판시스템 도입확대추세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지프로2.0"은 윈도우버전으로 제공되며 이전 버전에 비해 컬러분판출력 및 금칙기능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솔빛조선미디어

### 인코딩 MPEG카드 공급

솔빛조선미디어(대표 박현제)가 인코딩 MPEG카드를 수입 공급한다. 솔빛조선미디어는 최대 2백배로 동영상 압축하고 초당 37프레임까지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며 풀모션 풀스크린으로 비디오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미국 시그마디자인사의 인코딩 MPEG카드(모델명 프로듀서)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솔빛이 이번에 공급키로한 인코딩 MPEG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4분의 1 가격인 매당 5백만원정도의 보급형 보드이다.

특히 이 제품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를 캡처하고 MPEG기법으로 인코딩하는 32비트 PCI 카드와 소프트웨어 VTR 컨트롤러 실시간 비디오 프레뷰어는 물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도구인 "아도브 프리미어"와 "갤리거리 트루스페이스"가 함께 담겨 있다.

## 삼테크

### 삼테크, 영상카드 수입 판매

삼테크(대표 이찬경)가 영상카드 사업에 본격 나섰다. 컴퓨터종합유통업체인 삼테크는 최근 독일 비디오편집카드전문 생산업체인패스트사와 영상편집보드(사진 모델명 무비머신프로) 및 영상압축카드인 M(모션)-JPEG 보드에 대한 국내 판매계약을 맺고 시판에 나섰다 밝혔다.

삼테크가 공급하는 영상편집보드 "무비머신프로"는 MPEG 플레이백카드류와 달리 M-JPEG를 기초로 설계한 카드로 TV 튜너와 두 개의 외부입력을 선택 영상을 캡처 편집후 테이프에 녹화할 수 있는 비디오편집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사용자가 CD-롬 타이틀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무비머신프로"의 경우 편집 작업을 위해 2개의 번들 소프트웨어(아도브 프리미어 애니메이션어프로)를 제공하며 MPEG 엔코

더 소프트웨어인 상-CD도 번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패스트사가 국내 공급하고 있는 “무비머신프로”와 M-JPEG는 6백40×4백80 비디오캡처 비디오아웃 1대16~1백20압축률 조정가능 NTSC PAL지원등의 특징을 갖고있다.

제공할수 있다.



### 컬러 초음파영상진단기 개발

메디슨(대표 이민화)은 국내 최초로 컬러 초음파영상진단기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모델명 “DELTA-SA-7700”인 이 기기는 기존 흑백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인체 내부의 2차원 단면화상을 흑백 화상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인체 혈관 혈류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나타냄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컬러 초음파영상진단기는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것으로 혈관 내부 피의 흐름이 정상적인 방향및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색채로 나타내준다. 메디슨측은 이 기기를 사용 흑백 초음파진단기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혈류 순환에 관련된 다양한 병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장및 혈관계통의 진단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기는 또 최대 1백28장의 컬러 화상을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64채널에 첨단 빔집속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졌다.

현재 컬러 초음파진단기는 선진국 일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데 외국산의 경우 가격이 1억~1억5천만원 사이이다. 메디슨은 자체 개발한 이 기기를이 회사 창립기념일인 오는 7월2일을 기해 수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첫 출시를 할 계획이다. DC



### 종합정보통신망 TDX-10 ISDN교환기 개발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핵심요소인 TDX-10 ISDN교환기 개발이 최종 완료돼 이달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개통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양승택) 교환기술연구단은 지난 91년부터LG·대우·삼성·한화·동아전기 등 공동으로 수행해온 TDX-10 ISDN개발사업을 최종 완료하고 한국통신이 3월말 개봉을 위해 막바지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TDX-10 ISDN교환기는 서울 신사전화국(대우), 부산 아미전화국(한화), 대구 동대구전화국(LG), 광주 서광주전화국(삼성)에 각각 설치돼 최종 확인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TDX-10 ISDN교환기는 종합정보통신망의 중심에 위치해 각종 정보들을 교환·가공·저장·처리하며 고속 팩시밀리·텔레텍스·전자사서함·비디오텍스·영상전화 등의 다양한 단말기등을 접속할 수 있다. 또 음성통화 중에 데이터 전송서비스, 고속팩스서비스, 텔레마케팅서비스, 원격컬러사진 전송서비스, ISDN영상정보 서비스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